

투데이 칼럼

섬김의 100일, 현장에서 쌓아가는 변화의 약속

봄 빛이 완연한 4월, 덕진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돌아보니 부족함도 있었지만,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저를 이끈 힘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마주한 구민들의 목소리였다.

취임 첫날부터 마음 깊이 새긴 것이 있다. 거창한 계획보다 시민의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라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발견은 언제나 현장에서 향했다. 쓰레기 수거가 늦어지는 곳, 어두운 골목길, 손잡이 낡지 않은 채 방치된 공간까지 직접 살피며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갔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는 곧바로 행정의 과제가 됐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처리하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끝까지 쟁겼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 변화에 미소로 화답해주는 시민



이 기 섭

전주시 덕진구청장

들의 모습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다.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일상이 더 쾌적하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00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구청장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자리다. 그 본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남은 일기 동안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 곁에 서겠다.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며, 시민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풀어 나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민의 소중한 권리가 실현되는 과정이다. 덕진구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취임 100일을 맞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현장 속으로, 시민 속으로!' 시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 고민하고 해결하며, 변화를 쌓아가는 덕

진구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도록, 작은 불편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은 더 나은 행정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힘이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그 뜻이 정책과 현장의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반영하겠다.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겠다.

결국, 행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일상에서 완성된다.

덕진구와 함께한 100일은 부족함 속에서도 값진 시간이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화려한 성과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큰 약속보다 작은 실천을 묵묵히 쌓아가겠다. 그 길이 덕진구의 내일을 만든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덕진구.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

독자제언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3일간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축제가 절정에 이르는 4월 말부터 5월 초에는 성인 허리춤까지 자라나 파도처럼 일렁이는 보리밭과 노래 유제의 장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보리밭 축제는 2025년 5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다녀가는 등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관계로 고창군청, 고창경찰서 및 청보리밭축제위원회 등에서 많은 안내 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주차장 확충 및 셔틀버스 운영, 주말에는 일부구간 일방통행 교통통제 등 차량흐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운집하므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청보리밭 축제를 위해 주차 및 방

문전박대를 소개하자면 아침 9시 이전에 도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민약 입구부터 정체가 시작되었는데 주차장 깊숙이 들어가려 할 경우 도로 위에서 간혀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안전한 외곽에 주차하고 조금 걷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아울러 약 30만명의 출길을 걸어야 하므로 편한 운동화는 필수이며, 그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 시원한 생수 또한 필수 준비물이다.

또한 다리가 아플 수 있는 넓은 부지인 만큼 어른이나 아이와 함께라면 트랙터 관람차를 이용하면 넓은 청보리밭 축제장을 편안하게 둘러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조류신 고창경찰서 공음파출소 경감

노쇼사기, 달콤한 제안 뒤에 숨은 함정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소상공인과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수법은 지속적으로 전국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시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단체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의 대량 주문을 의뢰한다. 이후 "예산 문제로 특정 업체에서 대신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며 구매처를 안내하는데, 해당 업체 역시 공범이다. 이들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고, 남은 차액을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송금을 유도한다. 그러나 입금이 완료되면 연락이 두절되고, 실제 주문도 존재하지 않는 '노쇼'로 드러난다.

이러한 사기는 초기에는 공공기관 명의를 공문이나 명함용 이용해 신뢰를 형성하고, 긴급성을 강조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겠다"는 제안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은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의심스러운 주문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제안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넷째,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된 공문과 사업자 정보만을 믿고 송금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민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 112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또한 주변 상인들과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사기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흉분하며, 기본적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경택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정읍 용동우체국 유지하라”

정읍시 용동면 주민들의 이용처인 용동별정우체국이 우정 당국의 대안 없는 행정 처리로 폐국 위기에 처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승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폐국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사회는 이를 소통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북우정청은 오는 6월 말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용동별정우체국을 폐국하거나 우편취급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기존 우체국장이 사망한 이후 관련법에 따른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해당 우체국이 실적 부진이나 적자로 인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이다. 용동우체국은 정읍 관내 예금 실적 1위, 보험 2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10여년간 경영평가 1등급을 다수 획득

했다.

용동면은 지황(생지황·속지황)을 비롯해 배리류, 버섯 등 다양한 특용 작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단순한 우편 업무를 넘어 농민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농산물 불류를 책임지는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별정우체국 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폐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항의하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정우체국 직원들은 지역에 오랜 기간 상주하며 농산물 유통 과정 상담과 판로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 출장소로의 전환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단순히 우편물만 오가는 출장소로의 강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문제는 잠정 유보됐다.

전북 도내 관광지 14선

전북특별자치도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전시실에서 전북 '생태관광의 사계(四季)'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편 도내 관광지 14선을 새롭게 추천하는 자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시·군의 관광 명소를 엄선하기도 했다. 전주 색장정미소는 100여 년 된 정미소를 전시형 카페로 재해석한 문화 쉼터다.

군산 은파호수공원은 호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수변 조경이 어우러진 힐링 관광지다.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는 체험 콘텐츠를 갖춘 복합 관광지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는 빛과 미디어 아트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 전시공간이다. 남원 바래봉 눈썰매장은 허브밸리 내 운영되는 겨울 체험 명소다.

김제 지평선 새마루 스마트복합 쉼터는 휴게소를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완주 삼례 비비정마을은 맛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나들이 명소다. 진안 부귀산 전망대는 진안고원과 마이산 풍광이 한눈에 담기는 곳이다.

무주 초리농촌마을은 매년 12~2월 초리짚공놀이축제가 열린다. 장수 방화동 생태길은 계곡형 탐방로다. 임실청고 1964는 쌀 창고의 구조와 분위기를 최대한 보존한 카페다.

순창 선웨이어드벤처클럽은 총 42개의 독채형 객실로 구성된 클럽핑 장소다. 고창 옛도심 조양관 카페는 1935년에 건립된 근대 문화유산이다. 부안 휘복미술관은 조각 정원과 전시 공간, 카페 갤러리로 구성돼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